

광주 기업 후원 대구 큐레이터들이 만들었다

12~16일 대구 영무예다움 견본주택서
'달빛아래 예술축제, 스테어스 아트페어'
광주·대구·부산·경남 청년작가 64명 참여

'달빛동맹'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만든 단어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과 이념 등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 양 도시간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달빛동맹과 함께 문화교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는 12일 대구 영무예다움 견본주택에서 영·호남 지역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스테어스 아트페어 2019'가 개최돼 주목된다.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청년작가들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의 청년작가 64명이 달빛아래 모여서 만드는 협업의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 그 의미를 더욱 크다.

광주에서는 이인성, 하루K, 이조흥, 성혜림, 임현재(이상 회화) 박성배, 정진갑(이상 조각)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30~40대의 광주 출신 또는 광주를 기반

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청년작가들이다.

일정기간 사용 후 유희공간으로 비워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장소특정형 아트페어로 시도했던 것은 ㈜영무토건 박헌택 대표이사(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2014년 광주의 한 견본주택에서 시행됐던 '예다움 하우스페어'에서 90%이상 작품이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어올 초 대구의 젊은 기획자들과 면담을 거쳤고, 광주의 기업이 후원하고 대구의 청년들이 만드는 아트페어를 협업의 목표로 하여 행사가 추진됐다.

그 첫 번째 결실인 '스테어스 아트페어 2019'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큐레이터들이 주축이 되어 구상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존 아트마켓의 대안적 형태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청년작가들에게 미술시장 경험을 제공하고



박성배 작 '라이언'

자 기획됐다.

작가 중심 아트페어를 통해 청년작가에게는 실질적인 예술적 활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200만 원 이하의 작품 가격대로 대중에게는 예술작품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상업 화랑에 소개해 유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 형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1일 3회에 걸쳐 도슨트 프로그램뿐이 진행되며, 작가들이 상시 거주해 직접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 체험 프로그램, 무인 작품 경매,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보다 쉬운 아트페어가 될 전망이다.

스테어스 아트페어 운영진은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를 통해 실력 있는 청년 작가들을 알리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예술 문화를 확산하고자 준비했다"며 "본 아트페어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편하게 와서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의 모든 재정과 공간을 후원한 박헌택 대표이사는 "기획에 일철 간섭하지 않고 청년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아트페어의 취지"라며 "앞으로 광주, 부산 등 전국의 예술가들과도 협업을 준비중"이라고 전국 규모 프로젝트 구상 계획을 밝혔다.

스테어스 아트페어는 12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기간 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에 참여작가들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한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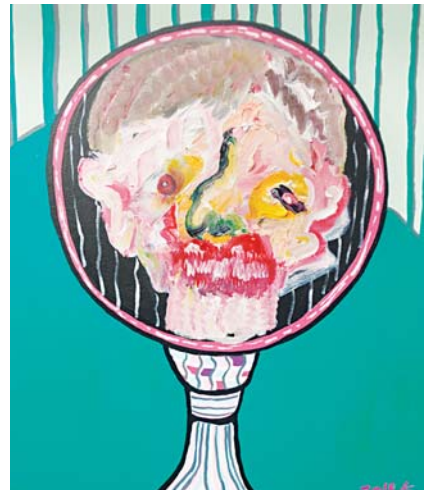
박기태·김성결·이반석... 3인 3색 청년작가
발산마을 아우라팩토리 '아트 뷰티샵' 전

광주 서구 양동 청춘발산마을 내 문화예술대안공간 아우라팩토리에 오는 18일까지 아름다운 얼굴과 신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광주 청년작가 3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공간이 아우라팩토리는 마을 내 미용실이었던 15평 규모의 주택을 리모델링해 재오픈한 곳이다. 두발과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주었던 마을 미용실이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소적 맥락에 맞춰 이번 전시주제 또한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다.

참여작가인 박기태, 김성결, 이반석 작가는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과 예술적 해석을 제시한다.

박기태 작가는 모델이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순간적 모습을 연상시키는 약 50cm 크기의 조형물인 '겉은 여인들' 시리즈를 선보인다. 인간의 신체적 조각보처럼 화려한 색채의 각진 면들로 표현한 박기태 작가의 작품은 겉모습에



김성결 작 'self portrait'

의존하는 아름다움의 편향된 가치를 나타낸다.

김성결 작가와 이반석 작가는 기묘한 얼굴을 각각 강렬한 색채와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 현대인의 혼란스런 자아와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이연수 기자

'세월-흔적' 찾는 흙의 여정

조용규 도예전, 19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전통도예의 청자토와 백토를 거부하고 오로지 흙 작업을 고집하며 세월과 흔적을 더듬어 내는 도예가 조용규의 전시가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흙 작업을 통해 때묻은 세속적 욕망 등의 흔적을 지우려는 작가는 이 흙의 정신으로 옛된 삶의 흔적을 더듬는다.

작가는 최근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인체를 통한 원초적인 조형미를 추구하며 원형질의 원시적 생명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월-흔적', '저달' 등 도자 작품에서부터 모던함과 실험성이 가미된 '아리랑', '샘', '자작나무 숲' 등 최근작까지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전통적인 기법, 즉 상감이나 분청같은

장식성이 없는 단순한 이조백자같은 전통 정신에서 조금은 이탈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읽힌다.

가마 속 불과의 만남이란 우연성은 결과물에 대한 작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엉뚱한 결과물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도예라는 지난한 작업. 이번 조용규 도예전은 결과물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과정과 결과물을 동일선상에서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순천 출신으로 고교 시절 국가 대표를 꿈꾸는 권투선수로 활약했지만 무리한 훈련에 허리를 다쳐 요양생활을 해야 했다.

스무 살 무렵 송광사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명(生滅)의 깨달음을 얻어 전지간의 영원한 생명인 흙을

벗하기로 하고 1978년 국립 마산도자기 시험소에서 처음 도자예수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 이전의 가마들을 찾아다니며 1세대 근·현대 도예인들과 교류하며 사사받았다.

1980년대 중반 광주에 내려와 차문화에 몰입해 전통 찻그릇을 빚다가 1988년 여수에서 '토완도예연구소'와 '불산요'를 열어 40여 년간 차문화 보급과 도예연구에 몰두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경인미술관과 여수 전남문화재단에서 '토완 조용규 도예 40년 전'으로 신산(辛善)한 도예 여정을 펼쳐 보인 바 있다. 한영대 강사, 여수시공예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여수문화원 시민 문화학교 회장으로 활동하며 토완도예를 운영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아리랑'



'흙센 주자'

일상에 스며있는 도자와 옷칠 예술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작가 4인 작품 전시

일상에 스며있는 예술의 또다른 모습을 도자와 옷칠공예로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문예회관은 오는 7월 7일까지 '일상의 예술: 도자·찰'전을 열고 일상의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도예·옷칠공예 작가 4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삶과 연결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작가 자신들만의 시각언어로 작품에 풀어내면서 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에 참여한 4명의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적 감수성이 일맥상통한다.

김익주 작가에게 물레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다. 또한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을 손이 움직이는 대로 빚어냄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감정을 표출시킨다.

김현아 작가는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대한 미적 대화를 시도했다. 작품 속 인체



최진경 작 '가족'

형상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재로 등장한다.

이명훈 작가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관, 다완, 차탁 등 전통 다기를 선보인다.

칠공예가 최진경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인 손가락을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인간관계로 시각화한다.

도자와 옷칠공예는 제작방식과 표현기법은 서로 다르지만 흙과 불, 나무 등 자연의 재료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함축된 에너지가 동일하게 담겨 있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